

2026
04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마가복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He is
Risen*

요한의 겸손의 비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섬기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며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요한에게 강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없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승천하신 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섬길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동역했지만, 항상 요한의 이름이 베드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교회의 대표로 일어나서 설교하여 3천명을 회심

시킨 것도 베드로였고, 그 뒤의 모든 사역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발언하거나 사역할 때도 앞장선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수십 년 뒤,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부터였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기에 자기가 나설 때와 물러설 때,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서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연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명품 조연으로 겸손히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원래 이렇게 주연 자리를 쉽게 양보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좌우에 형 야고보와 자신을 앉게 해 달라고 하던 야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겸손해졌을까요.

그건 요한이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출세시켜 줄 것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거기서 예수님을 이용해 출세해 보려던 그의 야심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비전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 달라고 불순한 야심을 보였던 제자에게 왜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요한의 야심과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보셨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앞에서 지켜보던 요한이 거기서부터 깨지고 변했다고 믿습니다. 갈보리 주님 십자가는 불순한 동기로 주님을 따랐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주님에게 헌신한 것만큼 이 땅의 축복으로 보상받으려 했던 그릇된 욕심도 무너뜨립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보상받았음을 알려 주는 은혜의 감동입니다. 교만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설 때 부서 집니다. 겸손은 노력해서 갖춰지는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할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헌신자로 만듭니다. 야심은 교만한 자가 꾸는 세상적 꿈이고, 비전은 겸손한 자가 꾸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야심에서 비전으로 가는 거룩한 터닝포인트.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는 자기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바로 앞에 서서 주님의 보혈을 목격하면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까지 앞세워서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고자 했던 요한의 야심과 경쟁심은 그날 십자가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우리를 구원 하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한은 그때부터 베드로의 뒤에 서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요한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마가복음]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He is Risen

2026.
04

SAEROUN

주일	월	화	수
29	30	31	1
3/31-4/4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5 부활주일	6	7	8
12	13	14	15
19	20	21	22
에이비 양육과정 수료식			
26	27	28	29

QT

목	금	토
2	3	4
성경속으로 개강		
9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더와이즈 개강 ▪ 남성사역 가족산행 ▪ 청년 연합 리더십 훈련 개강 		
16	17	18
에버그린스쿨 개강		
23	24	25
공동체 야유회		
30	1	2

3 M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6. 04

1	수	D-2)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전 1:18-25
2	목	D-3)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함	고전 1:26-31
3	금	D-4)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하라	고전 2:1-5
4	토	D-5) 성령의 지혜로만 보이는 십자가 비밀	고전 2:6-10
5	주일	[부활주일] 빈 무덤을 다시 채우지 마십시오	갈 2:20 & 롬 6:6-11
6	월	위의 것을 찾으라	골 3:1-10
7	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막 1:1-8
8	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막 1:9-11
9	목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막 1:12-13
10	금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다	막 1:14-20
11	토	권위 있는 새 교훈	막 1:21-28
12	주일	기브아 악행에 대한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	삿 20:1-16
13	월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	신 13:12-18
14	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막 1:29-34
15	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	막 1:35-39
16	목	깨끗함을 받으라	막 1:40-45
17	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2:1-12
18	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막 2:13-17
19	주일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삿 20:17-48
20	월	다툼의 뿌리	약 4:1-10
21	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막 2:18-22
22	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막 2:23-28
23	목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막 3:1-6
24	금	큰 무리가 예수께 나오니	막 3:7-12
25	토	열 두 제자를 부르심	막 3:13-19
26	주일	한나의 노래	삼상 2:1-11
27	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눅 1:46-55
28	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막 3:20-30
29	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막 3:31-35
30	목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막 4:1-20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SAEROUN QT

04

토요일

성령의 지혜로만 보이는 십자가 비밀

고전 2:6-10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We do, however, speak a message of wisdom among the mature, but not the wisdom of this age or of the rulers of this age, who are coming to nothing.

7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No, we declare God's wisdom, a mystery that has been hidden and that God destined for our glory before time began.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None of the rulers of this age understood it, for if they had,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However, as it is written: "What no eye has seen, what no ear has heard, and what no human mind has conceived"—the things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these are the things God has revealed to us by his Spirit.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빈 무덤을 다시 채우지 마십시오

갈 2:20 & 롬 6:6-11

[갈 2:20]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롬 6:6-11]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he lives to God.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위의 것을 찾으라

골 3:1-10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For you died, and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When Christ, who is your life, appears, then you als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Put to death, therefore,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evil desires and greed, which is idolatry.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You used to walk in these ways, in the life you once lived.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But now you must also rid yourselves of all such things as these: anger, rage, malice, slander, and filthy language from your lips.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Do not lie to each other, since you have taken off your old self with its practices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which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다

막 1:14-20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went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As Jesus walked beside the Sea of Galilee, he saw Simon and his brother Andrew casting a net into the lake, for they were fishermen.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낚는데

When he had gone a little farther, he sa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in a boat, preparing their nets.

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Without delay he called them,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with the hired men and followed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권위 있는 새 교훈

막 1:21-28

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They went to Capernaum, and when the Sabbath came,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22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Just then a man in their synagogue who was possessed by an impure spirit cried out,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What do you want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the Holy One of God!”

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Be quiet!” said Jesus sternly. “Come out of him!”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The impure spirit shook the man violently and came out of him with a shriek.

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The people were all so amazed that they asked each other, “What is this? A new teaching—and with authority! He even gives orders to impure spirits and they obey him.”

28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News about him spread quickly over the whole region of Galile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기브아 악행에 대한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

삿 20:1-16

1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Then all Israel from Dan to Beersheba and from the land of Gilead came together as one and assembled before the LORD in Mizpah.

2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 명이었으며

The leaders of all the people of the tribes of Israel took their places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four hundred thousand men armed with swords.

3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The Benjamites heard that the Israelites had gone up to Mizpah.) Then the Israelites said, "Tell us how this awful thing happened."

4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So the Levite, the husband of the murdered woman, said, "I and my concubine came to Gibeah in Benjamin to spend the night.

5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During the night the men of Gibeah came after me and surrounded the house, intending to kill me. They raped my concubine, and she died.

6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I took my concubine, cut her into pieces and sent one piece to each region of Israel's inheritance, because they committed this lewd and outrageous act in Israel.

7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지니라 하니라

Now, all you Israelites, speak up and tell me what you have decided to do."

8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All the men rose up together as one, saying, "None of us will go home. No, not one of us will return to his house.

- 9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But now this is what we'll do to Gibeah: We'll go up against it in the order decided by casting lots.

- 10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에 열 명, 천 명에 백 명, 만 명에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We'll take ten men out of every hundred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and a hundred from a thousand, and a thousand from ten thousand, to get provisions for the army. Then, when the army arrives at Gibeah in Benjamin, it can give them what they deserve for this outrageous act done in Israel."

- 11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So all the Israelites got together and united as one against the city.

- 12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The tribes of Israel sent messengers throughout the tribe of Benjamin, saying, "What about this awful crime that was committed among you?

- 13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Now turn those wicked men of Gibeah over to us so that we may put them to death and purge the evil from Israel." But the Benjamites would not listen to their fellow Israelites.

- 14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From their towns they came together at Gibeah to fight against the Israelites.

- 15 그 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이만 육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칠백 명인데

At once the Benjamites mobilized twenty-six thousand swordsmen from their towns, in addition to seven hundred able young men from those living in Gibeah.

- 16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칠백 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Among all these soldiers there were seven hundred select troops who were left-handed, each of whom could sling a stone at a hair and not miss.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

신 13:12-18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If you hear it said about one of the towns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o live in

13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that troublemakers have arisen among you and have led the people of their town astray, saying, "Let us go and worship other gods" (gods you have not known),

14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then you must inquire, probe and investigate it thoroughly. And if it is true and it has been proved that this detestable thing has been done among you,

15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you must certainly put to the sword all who live in that town. You must destroy it completely, both its people and its livestock.

16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You are to gather all the plunder of the town into the middle of the public square and completely burn the town and all its plunder as a whole burnt offering to the LORD your God. That town is to remain a ruin forever, never to be rebuilt,

17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니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and none of the condemned things are to be found in your hands. Then the LORD will turn from his fierce anger, will show you mercy, and will have compassion on you. He will increase your numbers, as he promised on oath to your ancestors—

18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because you obey the LORD your God by keeping all his commands that I am giving you today and doing what is right in his eye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막 1:29-34

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As soon as they left the synagogue, they went with James and John to the home of Simon and Andrew.

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Simon's mother-in-law was in bed with a fever, and they immediately told Jesus about her.

31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So he went to her, took her hand and helped her up. The fever left her and she began to wait on them.

32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That evening after sunset the people brought to Jesus all the sick and demon-possessed.

33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The whole town gathered at the door,

34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and Jesus healed many who had various diseases. He also drove out many demons, but he would not let the demons speak because they knew who he wa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

막 1:35-39

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Jesus got up,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a solitary place, where he prayed.

36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Simon and his companions went to look for him,

37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and when they found him, they exclaimed: "Everyone is looking for you!"

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Jesus replied, "Let us go somewhere else—to the nearby villages—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So he traveled throughout Galilee,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driving out demon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깨끗함을 받으라

막 1:40-45

40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A man with leprosy came to him and begged him on his knee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41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Jesus was indignant.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 am willing," he said. "Be clean!"

42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and he was cleansed.

43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Jesus sent him away at once with a strong warning:

44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See that you don't tell this to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sacrifices that Moses commanded for your cleansing, as a testimony to them."

45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Instead he went out and began to talk freely, spreading the news. As a result, Jesus could no longer enter a town openly but stayed outside in lonely places. Yet the people still came to him from everywher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막 2:13-17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Once again Jesus went out beside the lake. A large crowd came to him, and he began to teach them.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As he walked along, he saw Levi son of Alphaeus sitting at the tax collector's booth. "Follow me," Jesus told him, and Levi got up and followed him.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While Jesus was having dinner at Levi's house,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eating with him and his disciples, for there were many who followed him.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When the teachers of the law who were Pharisees saw him eating with the sinners and tax collectors, they asked his disciples: "Why does he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On hearing this, Jesus said to them, "It is not the healthy who need a doctor, but th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삿 20:17-48

- 17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사십만 명이니 다 전사라

Israel, apart from Benjamin, mustered four hundred thousand swordsmen, all of them fit for battle.

- 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벳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The Israelites went up to Bethel and inquired of God. They said, "Who of us is to go up first to fight against the Benjamites?" The LORD replied, "Judah shall go first."

- 19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The next morning the Israelites got up and pitched camp near Gibeah.

- 20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The Israelites went out to fight the Benjamites and took up battle positions against them at Gibeah.

- 21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앞드러뜨렸으나

The Benjamites came out of Gibeah and cut down twenty-two thousand Israelites on the battlefield that day.

- 22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But the Israelites encouraged one another and again took up their positions where they had stationed themselves the first day.

- 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The Israelites went up and wept before the LORD until evening, and they inquired of the LORD. They said, "Shall we go up again to fight against the Benjamites, our fellow Israelites?" The LORD answered, "Go up against them."

- 24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Then the Israelites drew near to Benjamin the second day.

- 25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땅에 앞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This time, when the Benjamites came out from Gibeah to oppose them, they cut down another eighteen thousand Israelites, all of them armed with swords.

- 26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벳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Then all the Israelites, the whole army, went up to Bethel, and there they sat weeping before the LORD. They fasted that day until evening and present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to the LORD.

- 2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And the Israelites inquired of the LORD. (In those days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was there,

28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느니라

with Phinehas son of Eleazar, the son of Aaron, ministering before it.) They asked, "Shall we go up again to fight against the Benjamites, our fellow Israelites, or not?" The LORD responded, "Go, for tomorrow I will give them into your hands."

29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Then Israel set an ambush around Gibeah.

30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They went up against the Benjamites on the third day and took up positions against Gibeah as they had done before.

31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꺾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벧엘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The Benjamites came out to meet them and were drawn away from the city. They began to inflict casualties on the Israelites as before, so that about thirty men fell in the open field and on the roads—the one leading to Bethel and the other to Gibeah.

32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꺾어내자 하고

While the Benjamites were saying, "We are defeating them as before," the Israelites were saying, "Let's retreat and draw them away from the city to the roads."

33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All the men of Israel moved from their places and took up positions at Baal Tamar, and the Israelite ambush charged out of its place on the west of Gibeah.

34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Then ten thousand of Israel's able young men made a frontal attack on Gibeah. The fighting was so heavy that the Benjamites did not realize how near disaster was.

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The LORD defeated Benjamin before Israel, and on that day the Israelites struck down 25,100 Benjamites, all armed with swords.

36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Then the Benjamites saw that they were beaten. Now the men of Israel had given way before Benjamin, because they relied on the ambush they had set near Gibeah.

37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라

Those who had been in ambush made a sudden dash into Gibeah, spread out and put the whole city to the sword.

38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The Israelites had arranged with the ambush that they should send up a great cloud of smoke from the city,

39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쳐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 다 하다가

and then the Israelites would counterattack. The Benjamites had begun to inflict casualties on the Israelites (about thirty), and they said, "We are defeating them as in the first battle."

40 연기 구름이 기둥 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달았고

But when the column of smoke began to rise from the city, the Benjamites turned and saw the whole city going up in smoke.

41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Then the Israelites counterattacked, and the Benjamites were terrified, because they realized that disaster had come on them.

42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So they fled before the Israelites in the direction of the wilderness, but they could not escape the battle. And the Israelites who came out of the towns cut them down there.

43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They surrounded the Benjamites, chased them and easily overran them in the vicinity of Gibeah on the east.

44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팔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Eighteen thousand Benjamites fell, all of them valiant fighters.

45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이천 명을 죽였으니

As they turned and fled toward the wilderness to the rock of Rimmon, the Israelites cut down five thousand men along the roads. They kept pressing after the Benjamites as far as Gidom and struck down two thousand more.

46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이만 오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On that day twenty-five thousand Benjamite swordsmen fell, all of them valiant fighters.

47 베냐민 사람 육백 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But six hundred of them turned and fled into the wilderness to the rock of Rimmon, where they stayed four months.

48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The men of Israel went back to Benjamin and put all the towns to the sword, including the animals and everything else they found. All the towns they came across they set on fire.

다툼의 뿌리

약 4:1-10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What causes fights and quarrels among you? Don't they come from your desires that battle within you?

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You desire but do not have, so you kill. You covet but you cannot get what you want, so you quarrel and fight.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3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When you ask, you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s, that you may spend what you get on your pleasures.

4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You adulterous people, don't you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means enmity against God? Therefore, anyone who choos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becomes an enemy of God.

5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Or do you think Scripture says without reason that he jealously longs for the spirit he has caused to dwell in us?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But he gives us more grace. That is why Scripture says: "God opposes the proud but shows favor to the humble."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Submit yourselves, then, to Go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Wash your hands, you sinners, and purify your hearts, you double-minded.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Grieve, mourn and wail. Change your laughter to mourning and your joy to gloom.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막 2:18-22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Now John's disciples and the Pharisees were fasting. Some people came and asked Jesus, "How is it that John's disciples and the disciples of the Pharisees are fasting, but yours are not?"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Jesus answered, "How can the guests of the bridegroom fast while he is with them?"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But the time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from them, and on that day they will fast.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No one sews a patch of unshrunk cloth on an old garment. Otherwise, the new piece will pull away from the old, making the tear worse."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And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Otherwise, the wine will burst the skins, and both the wine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No, they pour new wine into new wineskin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막 2:23-28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One Sabbath Jesus was going through the grainfields, and as his disciples walked along, they began to pick some heads of grain.

24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하

The Pharisees said to him, "Look, why are they doing what is unlawful on the Sabbath?"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밋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He answered, "Have you never read what David did when he and his companions were hungry and in need?"

26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In the days of Abiathar the high priest,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ate the consecrated bread, which is lawful only for priests to eat. And he also gave some to his companions."

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Then he said to them,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not man for the Sabbath.

28 이렇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So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큰 무리가 예수께 나오니

막 3:7-12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서 큰 무리가 따르며

Jesus withdrew with his disciples to the lake, and a large crowd from Galilee followed.

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When they heard about all he was doing, many people came to him from Judea, Jerusalem, Idumea, and the regions across the Jordan and around Tyre and Sidon.

9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Because of the crowd he told his disciples to have a small boat ready for him, to keep the people from crowding him.

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For he had healed many, so that those with diseases were pushing forward to touch him.

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Whenever the impure spirits saw him, they fell down before him and cried out, "You are the Son of God."

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But he gave them strict orders not to tell others about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SAEROUN QT

25

토요일

열 두 제자를 부르심

막 3:13-19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 온지라

Jesus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called to him those he wanted, and they came to him.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He appointed twelve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15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and to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16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These are the twelve he appointed: Simon (to whom he gave the name Peter),

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o them he gave the name Boanerges, which means "sons of thunder"),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Andrew, Philip, Bartholomew, Matthew, Thomas, James son of Alphaeus, Thaddaeus, Simon the Zealot

19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한나의 노래

삼상 2:1-11

1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Then Hannah prayed and said: "My heart rejoices in the LORD; in the LORD my horn is lifted high. My mouth boasts over my enemies, for I delight in your deliverance.

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There is no one holy like the LORD; there is no one besides you; there is no Rock like our God.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니 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Do not keep talking so proudly or let your mouth speak such arrogance, for the LORD is a God who knows, and by him deeds are weighed.

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The bows of the warriors are broken, but those who stumbled are armed with strength.

5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Those who were full hire themselves out for food, but those who were hungry are hungry no more. She who was barren has borne seven children, but she who has had many sons pines away.

6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The LORD brings death and makes alive; he brings down to the grave and raises up.

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The LORD sends poverty and wealth; he humbles and he exalts.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He raises the poor from the dust and lifts the needy from the ash heap; he seats them with princes and has them inherit a throne of honor. "For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re the LORD's; on them he has set the world.

9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He will guard the feet of his faithful servants, but the wicked will be silenced in the place of darkness. "It is not by strength that one prevails;

10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those who oppose the LORD will be broken. The Most High will thunder from heaven; the LORD will judge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give strength to his king and exalt the horn of his anointed."

11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Then Elkanah went home to Ramah, but the boy ministered before the LORD under Eli the priest.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눅 1:46-55

46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48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49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 하시며

for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holy is his name.

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humble.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rich away empty.

54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 하시되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remembering to be merciful

55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just as he promised our ancestor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막 3:20-30

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Then Jesus entered a house, and again a crowd gathered, so that he and his disciples were not even able to eat.

21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When his family heard about this, they went to take charge of him, for they said, "He is out of his mind."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And the teachers of the law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is possessed by Beelzebul! By the prince of demons he is driving out demons."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So Jesus called them over to him and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drive out Satan?"

24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25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26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And if Satan opposes himself and is divided, he cannot stand; his end has come.

27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In fact,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without first tying him up. Then he can plunder the strong man's house.

2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Truly I tell you, people can be forgiven all their sins and every slander they utter,

29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be forgiven; they are guilty of an eternal sin."

30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He said this because they were saying, "He has an impure spiri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막 4:1-20

-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 2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 3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4 뿌릴새 더러운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 5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 7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 8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 9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 10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 11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니

-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 13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 15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 18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 20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26.
04

순예배 가이드

01

1. 4월 첫째 주 (3/29-4/4)

[부활주일] 빈 무덤을 다시 채우지 마십시오 (갈 2:20 & 롬 6:6-11)

2. 4월 둘째 주 (4/5-11)

기브아 악행에 대한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 (삿 20:1-16)

3. 4월 셋째 주 (4/12-18)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삿 20:17-48)

4. 4월 넷째 주 (4/19-25)

한나의 노래 (삼상 2:1-11)

5. 4월 다섯째 주 (4/26-5/2)

엘리의 아들들 vs 사무엘 (삼상 2:12-26)

WORSHIP

01

[순예배 가이드] 4월 첫째 주 (3/29-4/4)

빈 무덤을 다시 채우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2:20 & 로마서 6:6-11

지난주 본문 요약 | 사사기에 나타난 죄와 은혜 (삿 21:25 & 룰 5:18-21)

사사 시대에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 노릇하는 영생을 얻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갈 2:20]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롬 6:6-11]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관찰/해석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he lives to God.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 **옛 사람(6절):** 성경에서 자주 쓰인 관용어로, ①문자 그대로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고인을 포함)이나 조상들'을 의미하거나, ②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하기 이전의 인생을 특징짓는 거듭나지 못한 본성과 거기에 기초한 악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선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찰/해석

묵상노트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죄에 종 노릇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3.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02

[순예배 가이드] 4월 둘째 주 (4/5-11)

기브아악행에 대한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

사사기 20:1-16

지난주 본문 요약 | 빈 무덤을 다시 채우지 마십시오 (갈 2:20 & 롬 6:6-11)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죄에 중 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듯이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p>1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 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p> <p>Then all Israel from Dan to Beersheba and from the land of Gilead came together as one and assembled before the LORD in Mizpah.</p>	
<p>2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썼고 칼을 빼는 보병은 사십만 명이었으며</p> <p>The leaders of all the people of the tribes of Israel took their places in the assembly of God's people, four hundred thousand men armed with swords.</p>	
<p>3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p> <p>(The Benjamites heard that the Israelites had gone up to Mizpah.) Then the Israelites said, "Tell us how this awful thing happened."</p>	

관찰/해석
<p>4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p> <p>So the Levite, the husband of the murdered woman, said, "I and my concubine came to Gibeah in Benjamin to spend the night.</p>
<p>5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p> <p>During the night the men of Gibeah came after me and surrounded the house, intending to kill me. They raped my concubine, and she died.</p>
<p>6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p> <p>I took my concubine, cut her into pieces and sent one piece to each region of Israel's inheritance, because they committed this lewd and outrageous act in Israel.</p>
<p>7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는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말지니라 하니라</p> <p>Now, all you Israelites, speak up and tell me what you have decided to do."</p>
<p>8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p> <p>All the men rose up together as one, saying, "None of us will go home. No, not one of us will return to his house.</p>

* 망령된 일(6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언행, 즉 우상숭배, 음행, 거짓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런 행실은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관찰/해석

9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But now this is what we'll do to Gibeah: We'll go up against it in the order decided by casting lots.

10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에 열 명, 천 명에 백 명, 만 명에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We'll take ten men out of every hundred from all the tribes of Israel, and a hundred from a thousand, and a thousand from ten thousand, to get provisions for the army. Then, when the army arrives at Gibeah in Benjamin, it can give them what they deserve for this outrageous act done in Israel."

11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So all the Israelites got together and united as one against the city.

12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됩이나

The tribes of Israel sent messengers throughout the tribe of Benjamin, saying, "What about this awful crime that was committed among you?"

관찰/해석

13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Now turn those wicked men of Gibeah over to us so that we may put them to death and purge the evil from Israel." But the Benjamites would not listen to their fellow Israelites.

14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From their towns they came together at Gibeah to fight against the Israelites.

15 그 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이만 육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칠백 명인데

At once the Benjamites mobilized twenty-six thousand swordsmen from their towns, in addition to seven hundred able young men from those living in Gibeah.

16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칠백 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Among all these soldiers there were seven hundred select troops who were left-handed, each of whom could sling a stone at a hair and not miss.

관찰/해석

묵상노트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공동체 안에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2. 남의 티끌을 바라보기 보다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하옵소서.
3. 죄가 드러났을 때, 겸손하게 진리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20:1]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03

[순예배 가이드] 4월 셋째 주 (4/12-18)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사사기 20:17-48

지난주 본문 요약 | 기브아 악행에 대한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 (삿 20:1-16)

이스라엘이 기브아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두번의 패배에 이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7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사십만 명이니 다 전사라
	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벳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19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20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이만 이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The Benjamites came out of Gibeah and cut down

관찰/해석
22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4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25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벳엘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니라

* 칼을 빼는 자(17절): 단순히 칼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칼을 뽑아들고 싸울 준비가 된 실전 투입이 가능한 훈련된 전투병을 말합니다.

관찰/해석

- 29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 30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 31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꺾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뵤엘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 32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꺾어내자 하고
- 33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쏘아져 나왔더라
- 34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 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죽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 36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관찰/해석

- 37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라
- 38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 39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쳐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 40 연기 구름이 기둥 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 41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 42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 43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 44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팔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관찰/해석

45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이천 명을 죽였으니

46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없드러진 것이 모두 이만 오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47 베냐민 사람 육백 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48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한 사람의 죄악으로 공동체가 심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분별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2.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3. 죄악과 타협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언제나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삿 20: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순예배 가이드] 4월 넷째 주 (4/19-25)

04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1-11

지난주 본문 요약 |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삿 20:17-48)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벌였으나, 두차례 패배한 뒤 하나님께 묻고, 전략을 세워 결국 승리하여 베냐민 지파와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Then Hannah prayed and said: "My heart rejoices in the LORD; in the LORD my horn is lifted high. My mouth boasts over my enemies, for I delight in your deliverance.

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There is no one holy like the LORD; there is no one besides you; there is no Rock like our God.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Do not keep talking so proudly or let your mouth speak such arrogance, for the LORD is a God who knows, and by him deeds are weighed.

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The bows of the warriors are broken, but those who stumbled are armed with strength.

5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Those who were full hire themselves out for food, but those who were hungry are hungry no more. She who was barren has borne seven children, but she who has had many sons pines away.

6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The LORD brings death and makes alive; he brings down to the grave and raises up.

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The LORD sends poverty and wealth; he humbles and he exalts.

관찰/해석

* 뿔(1절): 동물의 뿔은, 힘과 권세, 존귀를 상징하며, 성경의 시편에서도 뿔은 왕권, 승리, 회복을 상징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존귀하게 높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찰/해석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데도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와 같이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He raises the poor from the dust and lifts the needy from the ash heap; he seats them with princes and has them inherit a throne of honor. "For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re the LORD's; on them he has set the world.

9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He will guard the feet of his faithful servants, but the wicked will be silenced in the place of darkness. "It is not by strength that one prevails;

10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those who oppose the LORD will be broken. The Most High will thunder from heaven; the LORD will judge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give strength to his king and exalt the horn of his anointed."

11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Then Elkanah went home to Ramah, but the boy ministered before the LORD under Eli the priest.

* **진토(8절):** 먼지나 티끌로, '절망적인 상태', '아무 쓸모 없고 무가치한 것', '인생의 허무함' 등을 상징합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비천에 처할때나 궁핍할때나, 부하고 잘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2.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3. 역전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을 아시며, 결국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삼상 2:7]

여호와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도

05

[순예배 가이드] 4월 넷째 주 (4/19-25)

엘리의 아들들 vs 사무엘

사무엘상 2:12-26

지난주 본문 요약 | 한나의 노래 (삼상 2:1-11)

한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낮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며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12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은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4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찢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관찰/해석
16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9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걸음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0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 **기름(15절):** 양, 염소 등 동물의 콩팥이나 창자 주변에 있는 가장 좋은 부위를 가리키며, 피와 함께 음식으로 먹을 수 없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림으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있음을 고백하는 예식에 쓰였습니다.

* **세마포(18절):** 가는 삼실로 짠 아주 고운 삼베로, 제사장과 레위인, 높은 관직의 의복 재료로 쓰였으며, 성전의 휘장의 재료이기도 하고, 시신을 싸는 수의 재료로도 이용되어, '부귀', '영적 순결', '거룩한 행실'을 상징합니다.

관찰/해석

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
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
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
게서 듣노라

24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
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
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
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
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
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다

26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
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 회막 문(22절): 성소의 출입구로, '하나님의 면전(面前)'이라는 개념을 지닌 장소이며, 모든 제사가 드려지던 예배의 중심처입니다.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겉모습 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섬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2. 죄악을 방치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온전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3.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으며 성장했듯이,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균형있는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삼상 2:21]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026.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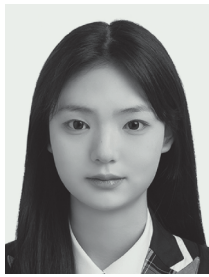
입교 및 세례 간증

02

1. 이사람A 학생 (뉴젠 고등부)
2. 이민정F 청년 (청년2부)
3. 심재서 학생 (뉴젠 고등부)
4. 박성빈 성도 (E서초공동체)
5. 임채욱 집사 (N강남공동체)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

이사람A 학생 (뉴젠 고등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억지로 교회에 나갔고,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한 채 다른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세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부 겨울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제 마음이 열렸고,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응답이 더딘 것 같아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천천히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공동체와 리더십 활동을 통해 저는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워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 믿음은 점점 자라났고, 제 삶에도 변화가 나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찾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공허했던 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옳은 길을 선택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움을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갈 때에도 함께 휩쓸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쉽지 않지만,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을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세워지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걱정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고등부에서 섬김팀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섬김의 기쁨을 나누며 성장하고, 모든 섬김이 주님을 향한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스며든 하나님

이민정F 청년 (청년2부)



저는 종교가 없는 집안에서 33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스스로의 삶을 이겨 내지 못해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한 나약한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 스스로가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제 인생에 종교는 없을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삶은 늘 해야 할 일과 책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 뚜렷한 목적 없이 그저 열심히 살아왔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깊이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새로운 경험으로 넘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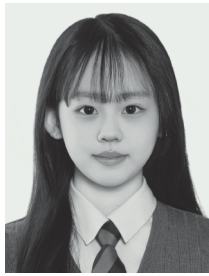
그러던 중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미국 출장을 가던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륙 직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직장 동료에게 “교회에 한 번 가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11월에 열린 VIP전도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좋은 인상을 받아 주일예배에도 몇 차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친오빠와 함

께하는 가족 사업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3주 연속으로 제 상황과 맞닿아 있었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워를 하던 중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크신 존재가 저를 깊고도 크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제 마음을 강하게 채웠고, 그 감동에 벅차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습, 그리고 나를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고, 이제는 제 자신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과 자유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속에서 만난 하나님

심재서 학생 (뉴젠 고등부)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배 시간에 자주 지각했고, 졸기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보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평계를 대

며 교회에 나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고등부에 올라와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서울에서 파주로 이사한 후, 더 일찍 일어나 교회에 가야 한다는 것도 싫었습니다. 고등부는 자유롭게 자리에 앉을 수 있었기에 저는 늘 맨 뒤에 앉아 모자를 쓰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소그룹 시간에도 “모르겠어요.”라는 말로만 대답하며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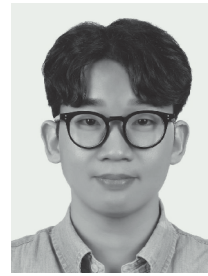
집에서는 방언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낯설었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고등부 첫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지 못했지만, 저녁 집회에서 찬양을 드리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고, 저도 그 모습을 닮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배들을 따라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픔을 알고 위로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 카드를 통해 받은 말씀 또한 제 상황에 꼭 맞는 내용이었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두렵기만 했던 기도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늘 맨 뒤에 앉던 제가 이제는 앞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소그룹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이후에는 사역팀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른 시간에도 스스로 일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노래보다 찬양을 더 많이 듣게 되었고, 습관처럼 사용하던 욕도 줄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며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아이

박성빈 성도 (E서초공동체)



2024년 신년 새벽기도회, 주말에 홀로 참석한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한 홍 목사님께서 임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태를 여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배에 손을 올리라고 하셔서 나도 따라 올렸어.” 당시 우리는 구체적인 임신 계획이 없었기에, 재미있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내의 오랜 이직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음이야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음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가 담겨 있습니다. 하음이야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그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되기도 전에 하음이의 귀 속에 큰 선천적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며,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수술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부모로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원들과 새로운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임을 믿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며 수술에 들어간 하음이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1년을 기다려야 할 검사를 단 1개월 만에 받을 수 있었고, 수술 전날 우

연히 아내가 과거 함께 성경공부를 했던 의대생 자매가 주치의로 배정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술은 예측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음이의 청력을 지켜주셨습니다. 고막과 귀 안쪽 조직을 절반 이상 제거해야 하는 대수술임에도, 하음이는 청력 손실 없이 무사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음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증거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음이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고, 기도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평탄함을 바라기보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음이의 귀에는 이제 수술 자국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돌이켜보면, 하음이는 우리 뜻대로 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연분만을 원했지만 응급 제왕으로 태어나고, 귀를 위해 기도했지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서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계신 하음이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례를 통해, 하음이와 함께 세례를 받은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이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겸손히 하늘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병상세례]

기도 속에서 만난 하나님

임채욱 집사 (N강남공동체)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10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향년 89세.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신 청백리 공무원이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르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 30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착하게 살면 됐다”고 하시며 마음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묵묵히 섬기며 살아가자,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오시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믿겠다는 고백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주에 계신 부모님을 매주 모시고 예배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실행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올해 1월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낙상으로 수술을 받으신 후 급격히 쇠약해지셨고, 2월 10일에는 심정지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뵈는 순간 시간이 많지 않음을 느끼고, 급히 공동체 목사님께 병상세례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기도

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힘없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 아버지는 눈에 띄게 평안해지셨습니다. 섬망으로 불안해하시던 모습이 사라지고, 가족들에게 “고맙다”, “수고한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3월 8일 새벽, 다시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연락드렸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 동생들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으신 아버지는 그 순간 숨을 거두셨습니다. 끝까지 가족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신 아버지를 보내드리며, 저는 작별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먼저 가 주세요.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위로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고 계십니다.

30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순간 아버지를 붙잡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TESTIMONY

최윤필인도자
**2026.
04**

새로운QT

도형 김

15조 인도자 김은정

12조 김귀란 인도자

10조 장진수 인도자

9조 김진형 인도자

원종수

4조 송광수

4조인도자 류재준

11조 오기은

6조 강석우

15조 박승혜

화요 커피브레이크 간증

이순임

9조 주정순

4조 양석원

9조장윤희

8조 박수민

4조 장영희

03

1. 이주연N 성도 (우면공동체)
2. 오기은 성도 (N강남공동체)
3. 이유진L 성도 (N서초공동체)
4. 성 응 성도 (N서초공동체)

서란12조

6조 김동훈

15조 박정희

1조 오상근

16조 박은영

8조 권광호

김태수 인도자

5조 김진성

5조 주덕

이유진

2조 광권용

3조 박정현

서혜진

18조 이주연

15조 김효윤

12조 안수경

2조 이록윤

14조 박민주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시간

이주연N 성도 (우면공동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데 익숙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성경을 나누며 읽는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처럼 역사적 흐름과 인물이 많은 본문은 혼자 읽다 보면 이해가 어렵고, 어느 순간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커피브레이크’ 수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성경공부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사도행전 속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읽고 질문을 나누면서,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이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환영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한 모습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혼자 읽을 때는 지나쳤던 장면들이 소그룹 나눔 속에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달랐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묵상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모임이었지만, 화면 너머로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서로 다른 시선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의 사역이나, 복음이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장면을 나누면서, 복음은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선택과 방향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성경은 혼자 공부할 때보다 함께 읽고 나누며 이해할 때 더 깊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의 질문을 듣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면서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주시고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다는 작은 용기도 얻었습니다. 말씀을 혼자만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질문하고 나누며 신앙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도 복음이 실제로 제 선택과 태도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더 고민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커피브레이크’ 수업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길 소망합니다.

함께 걷는 복음의 길: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배운 신앙

오기은 성도 (N강남공동체)



이번 ‘커피브레이크’ 성경 나눔 시간에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공부하며, 제 신앙의 여정을 깊이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부르심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고, 구약 말씀 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며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내가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에서 서로 다른 길을 택한 부분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 확장을 위해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보며, 저 역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결단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 바울과 동역자들이 성령을 의지하며 핍박과 갈등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제 감정과 환경에 따라 전도를 포기하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하는 얕은 신앙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돕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그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음을 깨닫고, 협력과 동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3차 선교 여정에서 바울이 혼자 여행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양육하며 구원으로 이끈 사건을 떠올리며,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를 일으켰음을 깨닫고, 선교의 핵심이 바로 구원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저와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순종하며, 어떤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세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바울의 선교

이유진L 성도 (N서초공동체)



저는 지난 방학 동안 처음으로 ‘커피브레이크’ 양육스쿨에 참여했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쳤던 문장을 다시 묵상하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

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알팍했던 저의 성경 지식이 하나하나 깨져가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기에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이번 방학에도 다시 ‘커피브레이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가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담대하고 대단한 사도구나!”라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모습은 제 마음 깊이 큰 도전이 되었고, 복음을 전한 곳을 다시 방문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그의 세심함에서 신앙의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의 주도 아래 마가와 함께 진행하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이방인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

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 등 여러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를 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태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듯한 은혜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과,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위로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돌아보며 저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커피브레이크를 통해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 웅 성도 (N서초공동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언제나 기대됩니다. 무엇을 배우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함께 있기 때문입

니다. 이번 방학, 저는 아내와 형제님의 추천으로 ‘커피브레이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건과 이야기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치 제가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듯한 경험을 주는 시간이라는 설명이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과정은 신약의 역사서이자 역동적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 전, 제가 속한 조의 조장님이 단독방으로 초대하며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뿐 아니라, 만날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까지 생기게 하는 우리 교회의 양육 방식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Zoom으로 만난 6명의 조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모두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반가웠습니다. 화면 너머에서도 서로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마음이 전해져,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번 커피브레이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며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중동과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

움과 갈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모습을 보며,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이 바울이 아닌 성령이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깊이 깨달은 점은 동역자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은 열정과 행동력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했기에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 인간의 이성과 협력을 사용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 또한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실히 감당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기쁨과 은혜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여정을 묵상하며, 저도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역자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신앙인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번 커피브레이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배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
